

2022학년도 KAU 학습공모전 수상작

1. 미디어 SMART 공부법	1
2. 꿈의 빌딩 공부법	5
3. 플립러닝을 200% 활용하는 ‘모방학습법’	8
4. 완벽한 학습을 위한 3 steps	12
5. 베이스러닝(Base-Running) 학습법	16
6. 대학생활의 시작은 ‘학습’의 정의부터 다시	20
7. SNS, 이제 전공공부에 활용하라	25

미디어 SMART 학습법

항공교통물류학부 22학번 최○○

○ 작성동기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과 미디어에 관한 활동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의 질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종이로 된 노트에 교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노트북으로 PPT를 저장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대학생들은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 이유는 휴대성이 좋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암기력이 좋고 지능이 좋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반복하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싸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디지털 기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일까?

○ 나만의 공부법 TIP

1) 강의 시간 워드(한글) 작성

누구나 알 듯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가장 잘 이해하려면 어딘가에 적어놓아야 한다. 물론 종이에다가 필기할 수 있지만 모두 팔이 아프고 교수님의 말씀을 자주 놓친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특히 전공 같은 경우 어려운 용어와 설명이 많아 필기를 잘해두어야 한다. 나는 강의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에 있는 워드(한글)로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적는다. 하지만 모든 말을 다 적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당일 배울 큰 주제를 맨 위에 쓰고 핵심 단어를 위주로 쓴다. 또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입력⇨문자표’에 들어가 화살표(⇨)를 ‘Ctrl+C(복사)’ 해둔다. 원인과 결과, 한 용어에 대한 풀이 등을 요약해서 쓸 때 화살표를 활용하면 요약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그림이나 도표를 배울 때는 사진을 찍어 두거나 아이패드에 똑같이 따라 그리고 워드(한글) 문장 옆에 ‘그림/사진 참고’라고 써둔다.

강의 내용	요약
예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는 추력, 양력, 중력, 항력이 있다.	항공기 힘 ⇨ 추력(원), 양력(위), 양력(아래), 항력(오)
양력은 베르누이 법칙과 뉴턴의 제 3법칙 ‘작용 반작용’에 의해 성립된다.	베르누이, 작용/반작용 ⇨ 양력(그림 참고)

2) LMS(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용하여 보충하기

코로나가 유행하고 나서부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지금은 대면 강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LMS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수업의 경우 강의실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따로 영상으로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업 때 필기해두었던 워드(한글)를 보면서 놓친 부분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LM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며 꼼꼼히 살핀다. 시험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모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거의 모두 적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충필기를 하면 된다. 강의를 다시 듣게되면 내가 필기해둔 워드(한글)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나에게 어려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메모지에 필기해두었다가 LMS에 있는 Q&A를 활용하여 여쭙보기도 하고 직접 강의실에서 여쭙보기도 한다. LMS를 통한 보충은 강의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도 오래남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의를 있었던 당일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항공기 힘⇒추력(원),양력(위),양력(아래),항력(오)
+양력, 중력, 항력 3가지를 공력(공기역학적 힘)이라고 한다.



3) 아이패드(굿노트) 요점정리

아이패드에는 ‘굿노트’ 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며 아이패드가 있는 대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굿노트는 단순히 노트처럼 필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다양한 색깔과 굵기의 펜, 형광펜, 연필과 여러 가지 종류의 노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지우기’ 등 설정 요소들이 많아 자유롭게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굿노트에 필기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요약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종이에다 할 때보다는 적게 걸린다. 굿노트를 사용할 때는 전공 과목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주차별 노트를 만든다. 강의실에서 들을 때 정리했던 워드(한글)와 LMS를 통해 보충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패드에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면 된다. 이때는 이전에 작성했던 모든 자료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시험을 보기 전에 이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차별 주제, 강의 내용, 도표/그림으로 구성된다. 이 요점정리는 주차별로 2~3시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에 꼭 요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중교통의 통행권 궤도형태에 따른 분류 (VUCHIC, V.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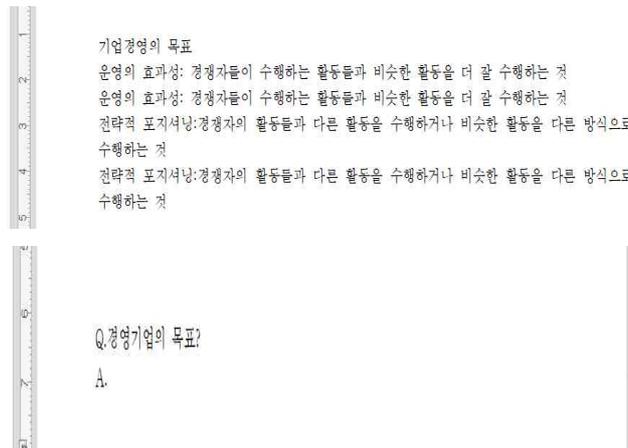
구분	교통수단	통행권	궤도형태	추진방식	제어방식	편상차량	편상당 용량(명)
저속	버스	C	도로	연소엔진/전기	시각	1	80-125
	노선버스	C	도로	전기	시각	1-3	100-300
중고속	BRT*	B	도로/궤도	연소엔진/전기	시각	1	80-180
	노선LRT	B	도로/궤도	전기	시각/신호	1-4	100-720
고속	중앙전차	A	궤도	전기	신호**	4-10	720-2500

* Vuchic의 분류에서 Bus Semi-Rapid Transit, 우리나라에서는 BRT(Bus Rapid Transit로 칭함)
 ** 신호로 교차하며 안전차량 통과하는 운영

* 도입을 교통혼잡해결을 위해 도입한다는 것, 시스템의 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도입(한글)은 버스여 배차 대이오영이 적다. 하지만 장의 버스도 있기 때문에 도입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면전차의 경우 차장이 크기 때문에 차량당 용량은 크지만 운행속도가 낮아서 많이 쓰임에 있어서 시스템 용량은 버스 보다는 약간 높고 BRT보다는 낮다.
 BRT의 경우 자동화된 교통체계로 BRT 구간 신호가 적용된다면 중앙전차와 같은 운영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BRT를 차를주행차량이 개발 될 경우 차를주행(신호)가 개발 될 것이다.

4) 워드(한글) 암기

워드(한글) 암기는 다른 학습법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공부법으로 가장 시간 효율적이고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이다. 워드(한글)암기를 하기 전에 아이패드(굿노트)로 요점정리 된 것을 보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을 암기한다. 그 후에 워드(한글)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붙여넣는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다. 암기를 하다보면 잘 외워지는 부분도 있고 잘 안외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워드(한글)암기는 잘 안외워지는 부분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통으로 암기하는데 도움을 준다. 노트에다가 직접 필기하면서 외우다 보면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손이 아파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워드(한글)에다가 타자를 치면서 외우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많이 반복하게 되어 암기하기 쉽다. 처음에는 문장당 기본 2~3번씩 치면서 외우고 특히 암기가 너무 안될 때에는 5번 이상 쳐보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2~3일 전에는 항상 직접 문제를 만들고 암기한 내용을 쳐보며 내가 외웠는지 못외웠는지 확인한다. 마지막까지 외우지 못한 문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외우는 방식을 선택한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워드(한글)와 아이패드(굿노트)등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를 복합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여러번 반복할 수 있게 되고 시간에 쫓

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미디어 SMART 학습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교과서나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1번도 정독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정독을 하더라도 암기하는 시간이 부족해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미디어 SMART 학습법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험 전에 자신감을 얻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3점대였던 학점을 4점대로 향상시키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되었다. 또한 나만의 학습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SMART 학습법을 적용하다보면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 여러개의 전공과목을 배우다보면 배웠던 내용이 기억에 잘 남아 연계점을 찾기에다 쉽고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을 복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최종 소감

미디어를 활용한 공부법이라고 해서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거나 더 빠르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공부법의 목적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가’ 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더 많은 내용을 봐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 SMART 학습법을 활용한다면 시험 전에 적어도 4번 이상은 배운 내용을 정독할 수 있게 된다. 강의 시간에 워드(한글)정리, LMS를 통한 복습과 보충, 아이패드(굿노트) 요점정리, 워드(한글)암기 순서로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미디어 SMART 학습법은 다른 학습법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부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하다보니 ‘반복과 시간 효율성’ 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기기(노트북, 아이패드)를 활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부법이다.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발전된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기보다 더 나은 환경을 잘 활용하여 학교 생활과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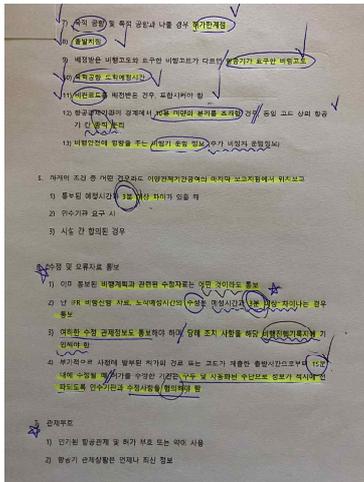
꿈의 빌딩 세우기 학습법

항공교통물류학부 20학번 김○○

계단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오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목적지이자 고지를 향해 사람들은 계단을 오릅니다. 저의 학습법 또한 계단을 오르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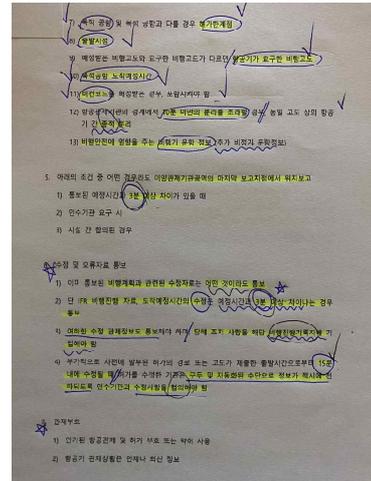
학우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전공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내용이 가득한 두꺼운 전공책을 이해하는 것일 것이며, 그 다음은 곧 다가올 시험, 더 멀리 나아가서는 전공지식을 토대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건물 하나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각 층은 공부의 목적. 목표라고하고, 2층에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전공자로서의 지식 습득을, 4층에는 배운 전공지식을 가지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5층에는 전공지식을 가지고 꿈을 이룬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설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1층에서 2층을 향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2층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기본 지식의 습득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공 관련 자료나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선 책을 펼쳤을 때 빼곡하게 글들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럼 형광펜 하나를 들고 중요해보이는 키워드에 밑줄을 칩니다. 전공용어 또는 수식, 수치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봅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이제 단어에서 문장으로 이해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까 밑줄을 친 용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토대로 저만의 문제지를 만듭니다. 저만의 문제지에는 밑줄친 단어가 빈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지만을 보고 빈칸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암기한 용어의 의미가 동시에 암기되며 문맥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문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로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최소 3번을 보게 되고, 중요한 문장은 최소 2번을 보게 되면서 대략적인 지식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층에 도착해있을 것입니다. 즉, 기본 지식의 습득을 완료하게 됩니다.



실제 저의 전공 자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에 표시해둔 것입니다 (왼쪽)

왼쪽 자료에서 표시해둔 중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만든 저만의 빈칸 문제지입니다 (오른쪽)



그럼 이제는 3층을 향해 가야합니다. 곧 있을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윗 단계를 모두 완벽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 전공책이나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TCAS라는 항공교통 전공 관련 지식에 관한 자료에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에 관한 실제 사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TCAS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제 사건을 분석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는 전공 자료나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사용합니다. 사건의 전개, 발단, 원인, 그리고 관제사와 조종사의 후속 조치 등에 관해 조사합니다. 책이나 자료 안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을 때의 효과는 ‘기억 속에 더 많이 남는다’입니다. 그리고 TCAS의 개념, 용도, 작동 원리 등에 관한 지식을 저절로 습득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다면 시험 문제로 전공 책이나 자료 밖에서 출제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u>위버링겐 상공 공중 충돌 사건 조사</u></p> <p>1. 사건 전말: 2002년 7월 1일 독일 남부 위버링겐 상공에서 <u>반시킴르 항공 2937편</u>과 <u>DHL 611편</u> 항공기가 <u>공중 충돌</u>한 사고로, 반시킴르 항공 2937편은 모스크바에서 <u>바르셀로나</u>로 향하던 <u>트볼레프 154M</u> 여객기였으며, DHL 611편은 이탈리아의 <u>베르가모</u>를 출발하여 벨기에의 <u>브뤼셀</u>로 가던 보잉 757-232APF 화물기였다. 2대의 항공기는 2002년 7월 1일 21시 35분에 독일의 <u>오벳겐</u>과 <u>위버링겐</u> 상공에서 충돌하여 총 71명이 사망한 사고로 기록되었다. 2004년 5월 19일 독일 연방 항공사고 수사국은 이 사고가 항공교통 통제 시스템의 문제 및 충돌 경보 체계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관제사의 지시)와 TCAS 지시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 이후 TCAS 지시와 관제사의 지시가 다른 경우 TCAS 지시를 우선시 하는 규칙이 제정되었다.</p> <p>2. TCAS에 대한 조사</p> <p>1) 기본 개념 및 운용방법</p> <p>공중충돌방지장치(TCAS)는 항공기의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항공관제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항공기의 주위를 <u>트랜스폰더</u>를 통해 감시하여 알려주는 충돌방지 시스템이다. ICAO에서는 5700KG 이상 또는 <u>객석수 19석</u> 이상의 모든 항공기에는 TCAS를 <u>장착해야함</u>다고 규정한다.</p>	<p>3) TCAS 종류</p> <p>-TCAS I-</p> <p>: 최초로 사용된 TCAS 기술로, 항공기 주변 약 40마일까지의 교통정보를 감시하고 다른 항공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와 고도 정보를 제공한다. 근접 경보 기능은 장착되어 있으나, 단지 경보를 알리기만 할 뿐 조종사에게 회피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종사는 관제실과 통신하여 회피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p> <p>-TCAS II-</p> <p>: 현재 사용되는 TCAS 기술로, 대다수 상용 항공기에 탑재된다. TCAS I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며, 조종사에게 음성으로 현재 상황을 지시한다. 즉시 대처 및 위험 예방 기능이 있고, 즉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descent, descent" 또는 "climb, climb"와 같은 음성 안내가 나오며 조종사에게 고도 변경을 지시한다. TCAS 탑재 항공기 간에는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신이 이루어지며 한쪽 항공기에 강하 지시가 내려지면 <u>다른쪽에는 상승 지시를 내려 두 항공기 간의 간격을 넓힌다</u>.</p> <p>-TCAS II 7.0-</p> <p>: 충돌방지 알고리즘을 크게 개선한 기술로, 음성경고, RA 시현, RA에 대한 비정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p>
--	---

(위 사진은 실제 제가 조사하면서 공부하며 정리해둔 자료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눈 앞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4층의 목표인 ‘지금까지 습득한 전공 지식을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 갖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전공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최대한 많은 기사나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공교통 전공자로서 항공기 운항, 관제, 공항에 관련된 기사나 논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확인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 발생한 세부항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항공기의 사고 기사를 접했다면 최소 같은 주제를 다루는 기사를 5개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 상황, 사용된 항공기의 기종, 대한항공의 조치에 대해 찾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악천후로 인한 착륙의 어려움이라면, 악천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한 최저 시정치는 얼마인지 등 제가 모르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공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항공교통 관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단순한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전공지식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5층, 지금까지의 전공 공부를 토대로 꿈 이루기에 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재학생이고, 저의 꿈은 관제사가 되는 것이기에 아직 5층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우 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최종 목표가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학습 방법이 학우 분들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5층이 최종 목표가 아닐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넓은 꿈을 가지고 6층, 7층, 8층... 자신의 꿈의 빌딩을 더 더 높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높은 꿈의 빌딩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꿈의 빌딩 학습법을 소개한 항공교통전공생 김채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립러닝을 200% 활용하는 ‘모방 학습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7학번 최○○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2학년부터 어려워지는 전공과목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전자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1학년 때는벼락치기만으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학년 부터 낮아진 학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전공과목이 플립러닝 수업 방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전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 깨달은 '모방 학습법'을 통해 3, 4학년 학점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 시 자기소개서 작성, 실무 면접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의 학습법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저의 '모방 학습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립러닝 강의에 먼저 익숙해진다면 대면 강의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식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직하게 따라 하다 보면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깊이 있는 이해와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력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받아적자. 과거 대면 강의에서는 교수님들이 시간에 쫓겨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플립러닝 강의에서는 교수님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강의를 구성하면서 내용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서 배우는 전공 내용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해주시는데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받아 적다 보면 어려웠던 내용도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말을 받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태블릿을 사용하여 필기한다면 나중에 필기했던 자료들을 한 번에 정리하여 보관하기 편하므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동영상에서 교수님 말을 따라 하면서 실제 남들 앞에서 설명하는 상상을 해보자. 첫 번째 과정에서 생각 없이 그냥 받아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영상 속의 교수님이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을 따라 해보면 지루하지 않게 받아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하면서 말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했던 상황들이 미래에도 상기되면서 전공 개념들이 잊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저의 학습법을 모방 학습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위의 2개의 사진은 저의 학습법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이처럼 3단계의 '모방 학습법'을 통해 나만의 강의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은 독창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어 취업 준비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취업 후에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까먹은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타인에게 설명하는 공부법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사고력이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에 착안하여 강의 동영상에 나오는 교수님의 말을 혼잣말로 따라 하면서 강의자료에 받아 적게 된다면 마치 내가 실제로 교수가 되어 학생들 앞에서 설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방 학습법'을 통해 교수님의 시험 스타일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학점은 물론이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공부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후에 배우게 되는 세부 트랙의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이해되고, 강의자료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공부법의 유일한 단점은 처음에는 교수님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동영상 시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처음의 고통을 참고 우직하게 계속 받아적다 보면 나중에는 적은 시간으로도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면서 시험에 나오겠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법을 통해 누적 학점 4.1로 졸업 예정이고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리해둔 전공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수월하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 소감

지금까지 저만의 공부 방법인 '모방 학습법'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공부법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므로 저의 학습법이 올바른 정답이라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학습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학우들의 다양한 학습법을 비교해보면서 본인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공부 방법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타인의 학습법 에세이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직접 경험해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과거에 정리하였던 강의자료를 다시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학 생활 4년 동안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저 자신이 기특하였고 1학년 때와 다른 현재의 학습법을 통해 상승하는 저의 학점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자과 4학년이고 과거에 반도체 과목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운 내용에 진로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는 오히려 어려

왔던 반도체 과목이 이해되어 자기소개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나아가다 보면 미래에는 뿌듯한 감정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학습 노하우 에세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학습을 위한 3 steps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9학번 심○○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졸업을 앞두고 효과적으로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학습법을 공유하고 싶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간 매 학기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저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노력했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이 크게 뛰어나진 않지만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학습법이 없거나 공부 방법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학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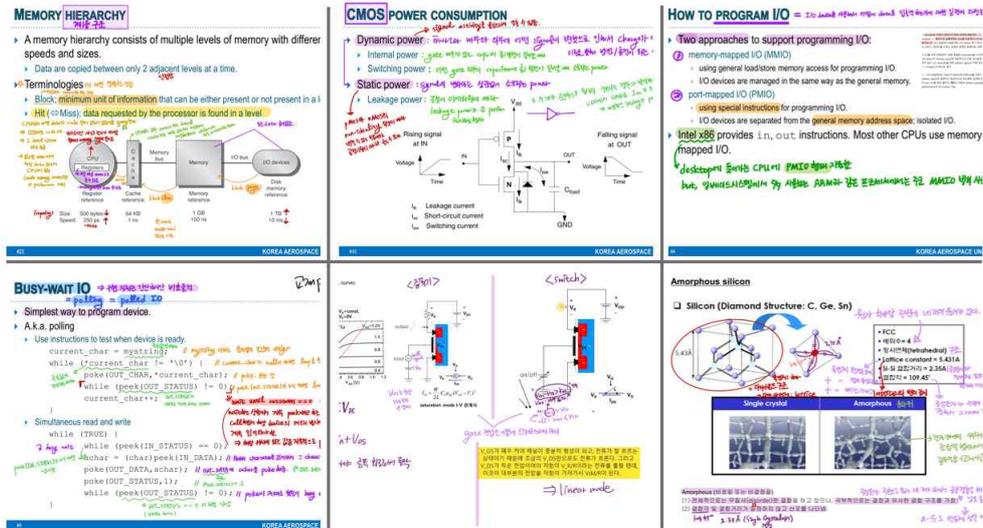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완벽한 학습을 위한 세 가지 단계>

1. 강의를 그대로 내 필기 노트에 옮기기

교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막연하게 느껴지고,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중 교수님의 말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큰 흐름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을 모두 받아 적는다면 복습을 할 때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업의 흐름, 즉 숲을 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강의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모든 강의 내용을 수기로 받아 적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채팅하기를 통해 타이핑으로 받아 적었고, 이를 캡처하여 강의 자료에 붙여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강의를 들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강의 시간을 표시해서 적어 놓고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듣는다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남들의 몇 배 이상 걸리겠지만 이 단계가 성적 유지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기에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으므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강의를 플립드러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강의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한 이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면 수업은 여러 번 돌려보기 불가능한 환경이므로 최대한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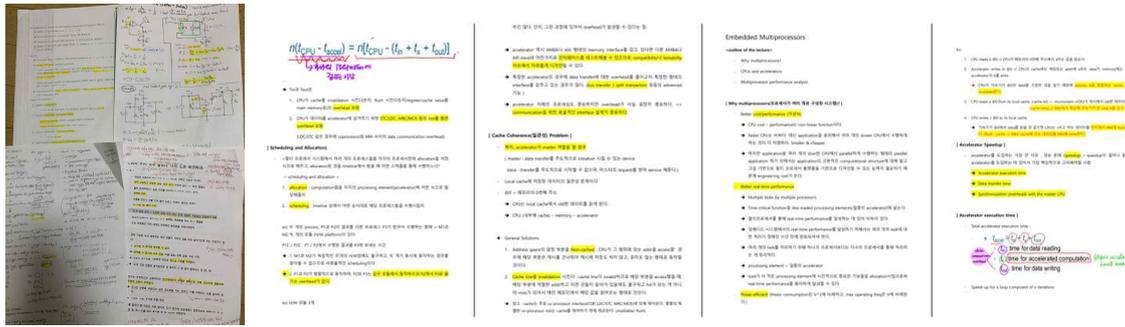
〈그림 1. 받아 적기를 실천한 수업 필기 자료〉

여기에 더해, 수업 전에 교수님께 허락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필기를 놓친 부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2. 재구성하여 최종 요약본 만들기

앞서 강의 내용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수동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받아 적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는 과정에서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교수님의 지식일 뿐이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중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 중 모르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모두 찾아 적어 지식을 확장하고,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암기해야 합니다. 가장 상위 개념을 고려하여 큰 틀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용은 시험뿐만 아니라 추후 직무 면접 시에 전공 관련 질문을 대비할 때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한 후 가장 기억이 또렷할 때 최대한 잘 정리해놓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식이나 그림이 많은 과목이라면 손 필기를, 수식보다는 글자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 과목이라면 타이핑 필기를 추천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강의 자료를 모두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완성한 최종 요약본을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림 2, 3. 강의 내용을 수기/타이핑으로 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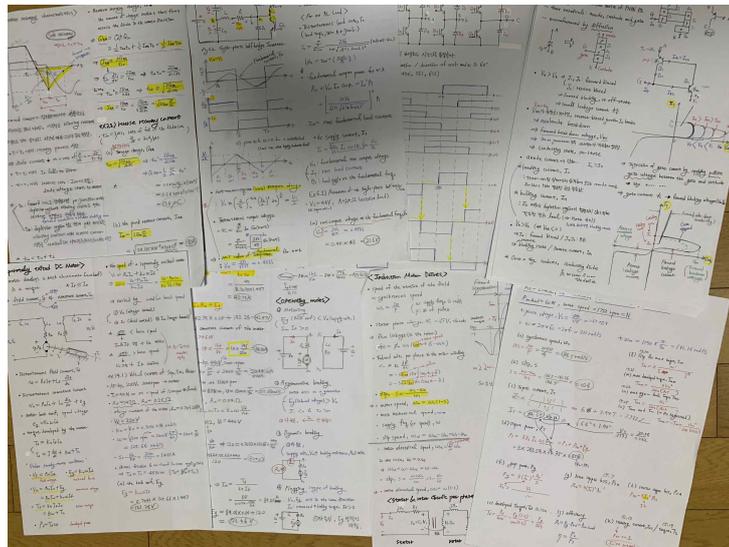
3. 백지 테스트를 통해 기억 점검하기

백지 공부법을 활용하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입니다. 이때, 개념이 중요한 과목과 문제 풀이가 중요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백지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개념이 중요한 과목의 경우에는 최종 정리 본으로 요약한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 충분합니다. 이미 요약본을 만들며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 풀이가 중요한 과목의 경우에는 단순히 풀이를 이해했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출제 가능성이 큰 문제를 따로 선정하여 백지에 문제를 모두 따라 적은 후 풀이를 오직 자신의 힘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풀이만 외우면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까지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풀이를 암기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풀이를 그대로 외운다고 해도 응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외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풀이의 흐름을 알면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먼저 강의 내용에 충실하게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지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내용을 보완하며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화이트 복습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화이트 복습법’은 최종 정리 본을 마지막으로 훑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화이트 또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개념을 복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4. ‘전력전자’ 과목을 백지 복습한 후 내용을 보완한 자료>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상기 서술한 학습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든 만큼, 또 노력을 들인 만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오로지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 이와 같은 투자를 하여 전공 지식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상기 서술한 학습법으로 학습 효과를 크게 거두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적음으로써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설계 프로젝트가 포함된 과목의 경우에도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이 어떤 것을 배우고, 구현하기를 원하시는지 파악할 수 있었기에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직무 면접을 볼 때 전공 지식을 복습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여 시간이 오래 지나 세부적인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강의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수업이 생생하게 기억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최종 소감

학습은 학생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은 모두 다르니 제가 제안하는 학습법을 참고하여 각자에게 맞게 변형시켜 학우 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세이를 작성하며 습관처럼 당연하게 수행하고 있던 저만의 공부법을 문서화 하며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뿐만 아니라 추후 진로를 위해서라도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학습을 꾸준히 하여 모든 학우 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스러닝(Base-Running) 학습법

항공교통물류학부 22학번 이○○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저는 아직 1학년이지만 저만의 학습법을 개발하여 지난 학기 평균 학점 4.5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학습법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 이 당연한 학습법을 재수 시기에서야 터득했고, 특히 고등학교를 막 올라온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공부해야 할 대학공부를 고등학교 때와 다름없이 하고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학습법입니다. 저의 학습법은 어떠한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베이스러닝 학습법에는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1.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무턱대고 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모든 과목에 대해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해될 때까지 고민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러자 저절로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와서 느낀 점은 양이 훨씬 많아지기에 단순 암기로는 공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민할 시간도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힌다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 다음에 또 모를 것이고, 흐름을 놓쳐 결국 다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학자)도, 심지어 저 선배도 이해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학자가 바라본 문제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x 축, y 축의 지표까지 왜 이 지표로 설정했는지 고민하세요. 완전히 한번 이해하면 여러 번 다시 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것을 시각화하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훨씬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과목들은 시각화할 수 있는 과목들과 하기 어려운 과목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과 경제 같은 시각화(그래프)할 수 있는 과목들은 머릿속에 그려놔야 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의 소비자 최적 선택을 설명한다면 저는 텍스트가 아니라 직선(예산선)과 곡선(무차별곡선)이 접하는 그림이 떠오르고, 이 선들에 대한 설명 다음 확대되어 접점이 보입니다. 이후, 높은 곳에 있는 곡선이 이 접점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낮은 곳에 있는 곡선이 이 접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

다. 제가 본 이 간단한 장면은 텍스트로 무려 2페이지 분량이나 됩니다. 수학의 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확대해서 ‘순서를 지키며(상하좌우)’ 기억하세요. 그런 뒤, 우리는 보면서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각화하기 어려운 과목들도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는 암기법 분야에서 다루겠습니다.

베이스러닝 학습법은 이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1. 암기전략

저의 암기전략에서는 스토리텔링 암기법과 음절 기반 암기법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암기법은 기본원리 2처럼 순서를 지키며 이미지화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단점을 외운다고 하면 먼저 머리에 자전거를 떠올리고, 안 좋은 기상(위), 장애물에 흔들리는 자전거(중간), 경사로(아래) 순서로 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내용도 순서를 지켜 외운다면 한 번에,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렇게 외우기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음절 기반 암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문장들에서 중요 단어들의 한 음절씩 따와, 음절들로 말이 되게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점시장의 특징을 저는 4개 문장에 상호 의존성, 비가격경쟁, 담합, 진입장벽을 골랐고, 진, 담, 비, 상으로 외웠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외울 방법입니다.

2. 내용 정리 및 요약 전략

가끔 어떤 과목 교재들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양이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계열 과목들이 그런 편인데, 이런 과목들의 경우 복습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책을 만듭니다. 우선 강의시간에 교수님의 말씀과 칠판 필기를 빠곡히 적습니다. 그런 다음 노트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말로 한글 파일에 적어나 갑니다. 노트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책을 찾아가 또다시 제가 이해한 말로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한 번에 완벽히 정리해서 책을 다시는 안 보겠다는 다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교수님 흐름 중심의 내용 정리 및 이해가 이뤄질 수 있고, 시험 기간 중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 정리 과정에서 부호 위계화를 이용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호 위계를 정했습니다. 1.(굵은 숫자) > ·(점) > -(데쉬) 이로 인해,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며, 전체 내용을 크게 보는 효과를 얻습니다. (자세한 예는 첨부된 제 교재를 참고해주세요)

3. 기타 전략

이외에도 자투리 시간, 수업 스타일 파악, 스케줄링 등의 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은 정말 중요한 공부시간입니다. 저는 등하갯길 같은 이동시간을 활용

하여 하루 공부의 1/3 이상을 할 정도입니다. 이동시간의 경우,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에 정리한 교재나 노트필기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주로 복습을 하며, 공강 시간의 경우, 이 해 기반으로 집중해야 하는 공부를 진행합니다. 수업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과목이더라도 증명 위주로, 또는 문제 위주로 나가는 등 수업 스타일에 따라 공부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교재 기반으로 나가는 수업의 경우,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다 풀어보는 것이 좋고, 교수님 자체 제작 자료로 나가는 수업의 경우, 사실상 그 자료 내와 지정하신 연습문제들, 가이드에서만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 특히 선배님들로부터 얻어지는 시험정보들은 이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만나 노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스케줄링의 경우, 외워야 할 양이 많고,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는 과목 중심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저 에게는 교통학개론과 경제학 원론이 이런 과목이기에, 교통학개론을 월, 화까지 공부하고, 경제학 원론을 수, 목까지, 금요일 날에는 다음 주 교통학개론 예습 및 두 과목 외운 것 복습, 토, 일에는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복습 시 양이 많아지면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복습하기 어려우므로, 월-금은 그 주차에 배운 내용만 집중해서 복습하고, 주말에는 1->2, 1->2, 1->3, 1->4, 2->5, 3... 주차가 거듭할수록 지난주 내용 우선 복습 후 다시 처음 주 복습 순서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어느 정도 근거해 복습 스케줄을 짰습니다. 비록 복잡하지만, 골고루,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제가 베이스러닝 학습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저의 이해의 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지식을 담을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잘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닌, 완전히 내 지식이 될 때까지 이해하고자 씨름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이해의 폭이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가 빨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향상되었고,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오래 걸리지만, 제대로 공부했기에 시험 기간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을 넘어, 일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업 공모전 등을 나갈 때도 베이스러닝의 기본원리들과 전략들을 활용해, 배웠던 전공 관련 지식과 고려해야 할 수많은 사항, 창의적인 생각들을 큰 그림 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수 있었고, 일을 이전보다 정교하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는 등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온라인 봉사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등 말하기 능력 역시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최종 소감

저는 이 베이스러닝 학습법에, 지난 21년간 공부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시험한 전략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학습법을 쓰면서 저 자신의 공부전략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학습법을 읽는 누구나, 이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헤매지 않고, 시험의 굴레에 갇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Base)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엔 오래 걸릴지 몰라도, 결국 뛰는(Running) 결과를 낼 것이다. 이것이 베이스러닝 학습법입니다.

대학생활의 시작은 ‘학습’의 정의부터 다시

항공교통물류학부 22학번 이○○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옆에 존재하지만,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우리 학교의 경우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하여 올해 신입생이었던 나는 대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누렸다. 우리 22학번은 비교적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학번이긴 하다. 하지만 20학번부터 22학번까지 모두가 대면수업은 처음이었기에, 선배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나는 내년의 신입생들이 경험하게 될 것들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최근’에 한 선배로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 나는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 보고 싶다.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학습이란 ‘대입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교 진학 후, 우리는 어떤 것을 ‘학습’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대학생이 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의 또 다른 말은 ‘책임’인 법. 고등학교 때는 학교 혹은 학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활동, 정보를 챙겨줬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공모전, 대회, 학술제, 간담회 등을 찾아 나서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학교생활을 하며 진로관련활동(취업준비라고 하기에는 새내기들에게 아직 너무 이르니까..) 또한 해야 하는데, 나는 이것도 학습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학습’이란 오로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는 것 일 뿐이라는 인식을 깨고 싶은 마음에 공모전에 참가하였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학습’에는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로에 대한 활동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험용 학습법에 대해서는 ‘평소에 공부하세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각각 말 그대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나만의 현실적인 행동요령을 위주로. 진로용 경험 학습법에 대해서는 새내기들에게 도움 될 만한 ‘학교생활 팁’을 위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 시험용 학습 (“ALL FOR EXAM”)

1. 시험공부를 위한 준비

꾸준한 공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을 하더라도 며칠 뒤 까먹는 것은 똑같다. 매일 매일 같은 내용을 본다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강의

를 수강하며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해야 하는 대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평소에 나는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공부 자료’를 만든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 스타일에 맞춰 정리한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학과목의 경우 필요한 개념 및 정의, 증명을 한 곳에 정리하여 공부하다가 찾아보기 쉽도록 한다. 암기과목의 경우 내가 외우기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 형식은 크게 ‘주제’, ‘항목’, ‘항목 개수’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나중에 공부할 때 이 항목은 어느 주제에 관한 것이며, 이 주제에 관한 것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외우지 못했는지, 무엇을 더 외워야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용이하다.

2. 시험공부

시험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나는 오직 ‘형광펜’과 ‘A4’ 용지만을 이용해서 공부한다. 우선, 내가 평소에 준비해놓은 ‘공부자료’를 프린트한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해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읽다보면, 내가 직접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쳐지나갔던 내용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한다. 중간에 이해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면 파란색 형광펜을 칠해두고, 교수님께 여쭙보도록 한다. 그 다음, A4용지에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적은 후에 공부자료와 비교하며 내가 완벽하게 외운 부분은 회색 형광펜을 칠한다. 검은 색 글씨에 회색을 덧씌워 어둡게 만들며 더 이상 그 부분이 내 눈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보라색 형광펜을 사용하여 표시해두고 집중적으로 외운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보면, 내가 만든 공부자료의 모든 글씨 위에 회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게 된다. 그럼 나는 그것을 다 외운 것이다. (물론 중간에 까먹은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겠지만)

3. 시험 기간 중

나는 시험용 학습과 진로용 학습을 나눠 생각할 정도로, 시험용 학습은 오직 시험만을 위해 불태운다. 때문에 시험을 보는 기간 중에는 나의 공부량과 학습 정도가 만족될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미리 꾸준히 공부를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험 직전 까지 시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는 법이다. 이때 컨디션 조절? 해당 과목에 대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 컨디션만 좋으면 뭐하겠는가. 나는 컨디션은 자신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컨디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험준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시험 보고 나서 ‘좀만 더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시험을 보며, 내가 습득한 모든 것을 쏟아낸다.

4. 시험 후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배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본 시험이 중간고사라면 교수님의 문제 스타일을 정리한다. 또한 나의 필기와 시험문제를 비교해 본다. 교수님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든 강조해 주신다. 내가 받은 시그널이 정확했는지, 교수님은 주로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시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내가 본 시험이 기말고사라면 시험이 끝난 후 내가 만든 공부자료 및 시험 후기들을 깔끔히 정리한다. 행여 내 지인이나 후배가 내가 수강한 과목을 들을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으니, 이번엔 나도 돕자는 취지이다. :)

#. 진로용 경험 학습 (“JUST DO EVERYTHING”)

1. 학교를 이용하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올라오고, 종종 학부 공지사항에도 올라온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자소서 작성 및 면접 연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및 현직자분들의 특강 등을 진행한다. 이런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자의 진로에 맞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자.

두 번째는 ‘공부’와 관련된 것이다. 주로 교수학습센터 또는 연구 협력처에서 진행하는데, 오로지 ‘교과 공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알아두면 좋을 법률 또는 컴퓨터 활용법 등에 대한 특강도 있다. 나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초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유니스터디 인강을 들으며 학업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새내기 지원센터 및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곳에서는 종종 다양한 성격 검사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성격을 수치화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배운 것을 이용하자.

모두들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배우며 ‘이걸 왜 배우지?’ 싶은 과목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다른 과목을 배우거나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배운 내용을 접목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나의 경우 이번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경영학 시간에 배운 ‘시장분석법’과 교통학 시간에 배운 ‘LOS’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배운 내용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익히면, 결과물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생각의 폭 또한 넓어질 것이다.

3.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아니다, 일단 다 해!

나는 현재 관심을 갖고 있던 타과의 전공과목을 신청하여 수강 중이다. 다른 과의 수업이라고 해서 듣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가 관심이 있다면, 용기내서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자. 이게 진정한 대학생 아니겠는가. 대학생의 자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학년은 많이 여유로운 시기이다. 전공지식이 없으니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은 말고, 일단 뭐든 하다보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1학년인 나는 항공교통물류학부 학술제에 나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들과 팀을 이루어 학술제에 나가며 선배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수상까지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나의 시험만을 위한 ‘시험용 학습’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시험은 학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의 집중적이고 집요한 공부는 오히려 해당 지식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식 습득의 수단’이 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해 4점대의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됐다. 좋은 성적과 다양한 경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 최종 소감

몇 사람들은 나의 공부법이 벼락치기 공부법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바쁜 대학생 활 속에서,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평소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재수강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평소 ‘시험기간의 나’를 위한 준비 정도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분량 제한 내에서 ‘시험’ 학습법, ‘경험’ 학습법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더 자세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학습은 오로지 앉아서 하는 공부만을 뜻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생각을 깰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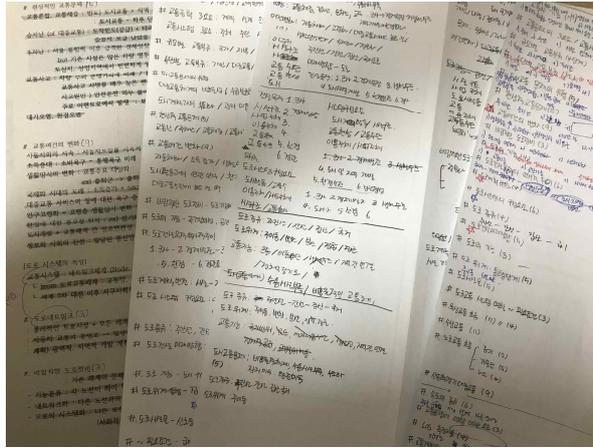


그림 1 공부 자료 및 공부 흔적

PC > 바탕 화면 > 학교 > 항공대 > 22-1 > 현중이

이름	수정한 날짜
과제	2022-11-13 오후 10:03
시험 후기.hwp	2022-06-01 오후 11:20
현중이 교재 정리-중간.hwp	2022-04-20 오전 2:59
현중이 서술형.hwp	2022-06-22 오전 5:00
현중이 정리-기말.hwp	2022-06-22 오전 3:55
현중이 정리-중간.hwp	2022-04-14 오후 9:21

그림 2 시험자료 및 시험 후기 파일



2022 KAU 기초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초학습부터 대학원 진학점유를 위한 맞춤형 강의를 통해 원용기초지식 Up!

개인 @ 0원 1,592 HTS

2022 KAU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모집대상: 재학생
 학년/성별: 전체 학년/전체 성별
 학과: 전체 학과

@ 0원 2022 KAU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 2022.08.08(월) 09:00 ~ 2023.01.31(화) 17:00
 📍 70 영 / 운영처:인 학습지원 센터/인문영
 📞 신청완료

전공기초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강좌 제공

신청완료 ★ 6 공유하기

그림 3 기초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신청화면

SNS, 이제 전공공부에 활용하라!

경영학부 21학번 황○○

○ 작성동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황성민입니다. 제가 이번 에세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전공 공부법은 일명 “SNS 공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부법을 보고 당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SNS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SNS는 자기 자랑용, 과시용 소셜 매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공부법을 활용하기 전에는 그저 SNS를 통해서 저의 과시를 하기 바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핫플레이스(Hot-Place)라고 불리는, 인기가 많은 맛집을 다녀왔을 때, 언제나처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좋은 여행지를 친구 혹은 가족과 방문했을 때, 언제나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려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던 도중,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처럼 학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매체가 없는데, 이런 SNS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SNS를 이용하여 대학교 전공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SNS가 과시의 현상이 아닌, 체계는 지식의 현장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SNS를 활용하여 각종 신간 도서 협찬도 받고 각종 대외 활동 서포터즈 경력까지 생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SNS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SNS는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전공공부를 하였는데요, 왜 저는 수많은 SNS 플랫폼 중에서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전공공부를 하였을까요? 이러한 저의 꿀팁을 여러분에게 모조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SNS 공부법’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공부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부법을 2022년 4월부터 실행하였는데요, 저는 사실 블로그를 이용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던 터라 ‘아 그래? 그렇구나... 열심히 해~!’ 하며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공 수업을 듣고 나서 전공 수업에 관련된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이 제게 발생했습니다. ‘분명 공부를 했는데 왜 수업 내용

이 기억이 잘 안 나지?’ 라는 의문과 함께 저는 일주일간 한참을 고민하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반복 학습의 부족’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교 과제나 출석은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으나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보기 전 2~3일 동안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학년 1학기 전공공부를 하면서 점점 전공공부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 대신 평소에 자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 문득 휴대폰 사용 시간을 나타낸 분석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 사용 시간이 무려 전체 휴대폰 사용 시간(100%) 중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이렇게 SNS 사용 시간이 많았구나’ 를 반성하며 동시에 이를 공부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난 뒤, 처음에는 “그러면 SNS에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노트 정리를하는 방식으로 SNS에 정리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전공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과목만 네이버 블로그라는 플랫폼에서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들으며 아이패드나 공책에 필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노트에다가 정리면 되는데 굳이 SNS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공부법의 장점 첫 번째는, ‘자주 들어가서 공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SNS를 습관적으로 볼 것이 없음에도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습관을 이용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저의 SNS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기억을 더듬어보며 전공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많이 보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블로그에 제가 남긴 전공공부 내용을 반복하여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공부법의 장점 두 번째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그만큼 블로그에는 제가 업로드를 한 글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렸더니 정말 뿌듯하다’ 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뿌듯함이 없으면 공부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공부법의 장점 세 번째는, ‘친구들과 자신이 배운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전공이 다른 친구들과도 서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SNS를 통해서 쉽게 친구들의 공부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

은 전공을 같고 있다면 서로 모르는 부분을 댓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며 ‘좋아요’나 ‘하트’를 눌러주는 행위도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스터디 모임을 힘들게 만들지 않더라도 SNS만 있으면 자동으로 전공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SNS 공부법에도 주의할 사항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자신의 글을 ‘전체공개’로 할 것인지, 또는 ‘이웃만 공개’로 할 것인지를 잘 알아보고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글을 쓰고 나서 이 글을 친구만 보게 설정해두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공개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하여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스팸 메일, 또는 악플에 대응하지 말 것’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판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각종 스팸 메일이 오는 날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차단을 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간혹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한 학기동안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결과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했던 과목은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SNS를 운영하는 것은 자신의 공부뿐만이 아닌, 대외활동에 지원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한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외활동은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가 관심 있는 대외활동이 생긴다면 블로그 경력을 활용하여 대외활동에 지원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의 공부만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2022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4개 이상의 대외활동 경험**을 학교생활과 병행하며 쌓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외활동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블로그 운영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 소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과연 이 말이 현대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이는 SNS를 현대인들의 과시욕의 장으로만 알고 있는 좁은 시야의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NS를 통해 전공 성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풍부한 대외활동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SNS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식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항공대 학우분들께서도 이 SNS 공부법을 적용하여 좋은 전공 성적과 대외활동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